

예수님의 말씀을 듣고

2022년 1월 1일

-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 -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.
 - 목적 있는 삶.
 - 우리는 풍부하고 깊은 경험을 원합니다.
 -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삶의 표면을 훑어보는 것 같습니다.
 -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일상과 리듬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.
 -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것과 같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모릅니다.
 -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?
실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?
 -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?
 -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
 - 예수께서 '새로운 피조물'이라고 부르신 것이 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?
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갑니까?
-
- Mark Scandrette 는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.
 - “나사렛 예수가 혁명적인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쳤다면 실제로 가능하고 치유와 희망으로 살아 있다면 경험의 길이 필요합니다.
우리 일상 생활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그 혁명”. - 마크 스크랜드레트
 - 나는 이 글을 좋아한다.
 - 그는 “우리는 그 혁명을 경험하기 위한 길(PATH)이 필요합니다” 했습니다.
 -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정확한 언어를 반영합니다.
 - 예수님은 자신을...길(THE WAY)로 묘사하셨습니다.
 - 예수께서 "내가 길이요.."라고 말씀하셨을 때 . 그는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풍부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.

- 2000년 후, 미국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(Robert Frost)는 같은 은유를 그의 동료 시인들 중 몇 명 사이에서 결정적인 신조가 된 시:
 - 그는 떠오르는 두 개의 길에 대해 말하며 사람이 덜 가던 길을 택했습니다.
 - 예수께서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.
 - 두 개의 도로.
 - 하나, 넓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.
 - 또 다른, 좁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을 여행합니다.
 -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“길”을 제공하는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.
 - 이제 그 단어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단순한 명사처럼 보입니다.
 - 길은 길, 거리, 길입니다.
 - 우리는 인생 길 안내 및과 함께 정지 표지판과 "추월 금지" 경고를 쓰고, 목적지까지의 마일리지를 계산합니다.
 -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.
 -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까?
 - 길WAY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수단을 동등하게 참조하는 것 같습니다.
 - 목적지만이 아니죠?
 - 방법. 도보로, 자전거로, 자동차로?
 - 방법. 경관 도로 또는 고속도로?
 - 그것은 우리가 가는 곳만큼이나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.
 - 사람들이 "미국 방식(THE AMERICAN WAY)"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?
 - 그건 목적지가 아니죠 ?
 - 누군가가 "그건 미국 방식이야"라고 말할 때
 - 그것은 무엇을 했는지 보다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. 맞습니까?
-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.
 -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식,
 -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,
 - 생각하는 방식
 - 우리가 의미를 찾는 방법.

- 우리가 일하는 방식.
 - 우리가 노는 방식.
 - 우리는 이것을 "예수님의 길"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
 -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주목하십시오.
 - 경로는 예수님입니다.
 - 그는 "오, 저를 찾으셔서 다행입니다. 저기 있는 길을 보고 저쪽으로 가서서 규칙과 표지판,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"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.
 - 그는 당신이 나를 찾아줘서 기쁘다고 말합니다. 나는 길이다.
 - 그런 다음, 그는 우리에게 그와 함께 가도록 초대합니다.
 -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.
 - 모든 종류의 지형과 모든 종류의 날씨를 통해.
 -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진정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.
 -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에 모으기 시작했을 때,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.
 - 간단한 두 단어: 나를 따르라(FOLLOW ME)
 - 예수님께서 하시는 급진적인 선언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습니다.
 - 인생이라는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있으며 정말 좋습니다.
 - 그런 다음 세 가지 필수 명령을 따릅니다.
 - 회개하고 믿으며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.
 - 첫 번째 명령인 "회개하라"는 우리가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버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
 - 그것은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입니다.
 - 두 번째 명령인 "믿다"는 개인적, 신뢰적, 관계적 참여를 요구합니다.
- 실제와 진실에 대한 포괄적인 재정렬입니다.
-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인 "따르십시오"는 우리를 삶의 방식으로 움직이게 합니다.
 -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.
 - 그는 문자 그대로 "나를 따르라"는 뜻이었습니다.

- 리더를 따르는 아이처럼.
- 그는 우리에게 그를 따르라고 권유했습니다.
- 그와 함께하기 위해.
- 그리고 그가 한 일을 하기 위해.
-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격과 모양이 주어진 삶의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에 의한 지시.
-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형성된 일의 리듬과 방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예수의 영향.

-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가 하고 있는 방식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귀와 눈만큼이나 발에 관한 것입니다.
- 다시 말해서, 인간이 되는 새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다시 꿈꾸십시오.
- 나는 이 현실이 처음 나를 강타했을 때를 기억합니다.
- 내 말은,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.
-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.
- 나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"올바른 것"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었습니다.
- 그러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.
- 사실 기껏해야 예수님을 모셔다 드린 정도였습니다.
- 예를 들어,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

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했습니다.

- 벽에 부딪혀 질문을 하기 시작한 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.
- 그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.

그의 방향.

- 그들은 그들의 지시를 따르기를 그만두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.
-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를 가했습니다.
- 나는 내 삶을 보고 알았습니다. 나는 이렇게 계속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릅니다.
- 내 말은, 나는 내가 사는 곳, 학교를 다니는 곳, 내가 하는 일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제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...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.
- 내 삶이 그의 삶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.

- 보세요, 그게 전부입니다.
 -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
 - 오늘날 이 지상에는 자신을 예수의 추종자라고 부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.
 -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것은 훨씬 쉬웠습니다.
 - 어렸을 때 리더를 따라 놀았습니다.
 - 쉽죠?
 - 리더는 이 울타리를 오르고 당신은 울타리를 같이 올라갑니다.
 - 리더가 해당 로그 아래로 이동하면, 당신도 해당 로그 아래로 이동합니다.
 - 교회에서 우리는 "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규칙은 리더를 따르는 규칙과 다릅니다."
 -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실제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.
 - 마음속으로만 따르다면, 의미가 없습니다.
 - 그가 "당신이 담장을 오르는 것을 기억했어요."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.
 - 또는 "놀라가다Climb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를 찾아보고 '수단' 이라는 뜻인데,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단어 연구를 했습니다.
-
- 또는 "친구 몇 명을 집에 초대하여 울타리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."
 - 당신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결코 리더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그리고 나는 이것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
 - 누가복음 6장에서 그는 "어찌하여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내가 네게 시키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"고 말씀하십니다.
 - 또는 마태복음 7장에서 "너희가 이런 길WAY를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"고 말씀하십니다.
 - 그는 그것이 매우 간단하다고 말합니다.
 - 내가 나를 따르라고 하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.
 -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합니다.
 - 이것으로 이 시리즈의 요점을 알 수 있습니다.
 -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관행이나 습관에 종사해 왔습니다.
- 예수님의 길.
- 그리고 이 시리즈는 당신이 그것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.

- 우리는 영적으로 형성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.
 - 그리고 그것은 듣기로 시작합니다.
 - 부탁을 들어주세요.
 - 누군가 당신의 눈에 눈가리개를 씌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.
 -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.
 - 가만히 서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 - 그러나 이제 같은 사람이 당신이 어딘가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.
 - 그리고 당신이 가고 있는 곳으로 가는 방법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.
 - 이제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, 방향을 바꾸는 방법 또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,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.
 -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.
 -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을 돌아해보면 그들은 오늘날 그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우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.
 - 그들은 그분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 임재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.
 - 그들은 그를 보고, 그의 목소리를 듣고, 그의 모범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.
- 그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.
-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?
 -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잡고 그분의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입니다.
 - 우리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.
 -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.
 - 그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방에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다는 점만 빼면.
 -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과 소음으로 가득 찬 경기장과 같습니다.
 - 보십시오,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.
 - 첫째, 너무 물리적이고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의존합니다.
 - 그리고 너무 많은 소음, 방해 요소,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.
 - 예수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
 -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한 사람.
 - 매일 어디로 가야 하는지,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수백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.

해야 할 것,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, 무엇을 운전해야 하는지,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,
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,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,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, 우리가 행복을 찾는
방법...

- 보십시오, 우리는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.
-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눈을 가린 상태입니다.
-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.
-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혼돈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?
- 우리는 그의 말을 어떻게 들습니까?
- 우리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얻습니까?
- 지금 예수님께서서 "나를 따르라. 내 말을 들어."
- 아마 "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?"라고 말할 것입니다.

- 다음은 예수를 처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에게 대한 흥미로운 점입니다.
- 오래지 않아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.
- 예수님은 눈가리개를 하셨습니다.
-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습니다.
-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모으십니다. 그들에게 몇 마디 교훈을 줍니다.

그런 다음 그는 하늘로 올라갑니다.

- 예를 들어, 그는 그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.
- 그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갔다.
- 그러나 이제 그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.
- 그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무대 왼쪽으로 존재합니다.
-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?
- 그 후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?
-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미 한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수세기 동안 하고 있습니다.

- 그들은 목상했고 경전을 목상했습니다.
- 구약성서의 히브리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.

명상, 그리고 함께 약 58번 사용됩니다.

- 첫 번째는 하가입니다.
- 두 번째는 시야흐입니다.
- 속고하다, 고려하다, 열심히 듣다, 반영하다, 반추하다를 의미합니다.
-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, 행위, 행동에 근거합니다.
-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,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.
- Hagah , Siyach , 신에 대하여.
- 시편 기자는 “내가 율법을 어찌나 사랑하는지요 종일 묵상합니다.”라고 말합니다.
- 나는 침대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밤중에 당신을 묵상합니다.
- 내 눈이 깨어 있어... 주의 약속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.
- 우리는 이삭 , 엘리, 사무엘, 다윗, 이사야, 예레미야에 대해 읽었습니다.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했습니다.
-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.
- 초기 기독교 교회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.
- 그들의 활동은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
- 그곳에서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떠나신 후 첫째 날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

사도행전 2:42

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.

-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.
- 왜입니까?
-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.
- Thomas á Kempis는 이 관행이 '예수님과 친숙한 우정'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- Dietrich Bonhoeffer는 왜 중재를 했는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“신자”
- 그래서 정확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
- Richard Foster는 우리가 경전을 묵상할 때 “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음 속에 내적 성소를 지으실 수 있는 영적 공간입니다.”
-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듣고 있습니다.

- 우리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.
- 우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.
- 우리는 그가 우리 삶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.
-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. 창조자와 소통합니다.
- 그 중 첫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.
- 이제 우리가 단순히 경전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건 완전히 다른 학문.
- 우리는 좀 더 개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더 친밀한 것.
- 성경 묵상은 방금 읽은 내용을 내면화하고 개인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- 지금은 분석 및 기술 연구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.
-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본문에 기대어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순간이 있습니다.
- “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.”
-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.
- 우리는 "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평화를 말씀하셨고 다른 어떤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까?"라고 묻지 않습니다.
- 우리는 그가 그것을 우리에게 '준다'고 말함으로써 그가 실제로 의미한 바를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.
- 우리는 단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의 실재를 경험하기를 원할 뿐입니다.
- 우리의 마음, 생각, 영은 그의 평화를 통해 깨어나고 변화됩니다.

연습: Lectio Divina

- 내가 설명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 온 일입니다.
- 그리고 결국 "Lectio Divina"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.
- 또는 문자 그대로 "신성한 독서"
- 3세기에 초대 교부 중 한 명인 오리게네스는 접근 방법을 설명했습니다.

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성경.

-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

- 그리고 이 관행은 사막 교부들과

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생활의 기초로 삼았습니다.

-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지금, *lectio divina* 는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실천입니다.

진정한 변화로 이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끎니다.

- 그래서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.

- 그냥 평평해집니다.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인생은 어디에?

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?'묻습니다.

-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몇 번이고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.

듣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.

- 바빠졌습니다.

-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.

- 그리고 나는 듣기를 멈췄다.

- 귀를 막은 것 같습니다.

- 그리고 지금 나는 눈을 가리고 듣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.

- 삶의 가구에 걸려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다 나중에 후회한다.

-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.

-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?

-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앉아서 그의 책을 펼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말씀, 그리고 들으십시오.

-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.

- 삶.

- 평화.

- 목적.

- 기쁨이 돌아오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

-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?

-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. 나는 당신과 함께 *lectio divina* 실천을 걷고 싶습니다 .

- 내가 하는 방식.

- 연습은 5개의 뚜렷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것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

- 1)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(silencio)

- 나는 보통 장치를 끄거나 보이지 않게 숨깁니다.
- 조용한 곳에 앉아 있는데 1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.
- 나는 마음을 가라앉힌다.
- 그런 다음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간구합니다.
- 다음은...

- 2) 독서(lectio)

- 나는 이제 짧은 글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습니다. 결코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.
- 그리고 난 그냥 내 시간을 가지고.
- 나는 글을 읽을 때 어떤 단어와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입니까?
독특한 방식으로 내 관심을 끌기.
- 특정 단어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잠시 멈춰서 생각합니다.
그것들을 구체적으로.

- 때때로 나는 그것을 일지에 적는다.
- 그런 다음

- 3) 성찰(명상)

-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습니다.
- 텍스트를 통한 두 번째 여정에서 나는 텍스트가 나와 연결되도록 허용합니다.
내 마음에 특별한 울림을 주는지, 인생의 계절, 지금 이 순간

-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.
- 본문에 비추어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, 무엇이 되어야 하며, 무엇을 해야 합니까?
- 이것이 오늘날 내 삶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?
- 다음으로 시간을 내어 다음을 수행합니다.

- 4) 응답(oratio)

- 개인적으로 나는 이 부분을 쓰기로 선택한다.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.
내가 방금 들은 것에 대해 정말로 생각해보세요.
- 때로는 몇 문장이고 때로는 몇 페이지입니다.
- 아이디어는 내가 단순히 신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.
- 마지막으로 저는..

• 5) 휴식 (목상)

• 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도망치기 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는다.

• 경이로움, 경외감, 감사 또는 찬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시오.

•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,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실제로 그분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.

• 사실 얼마 전 하루를 잘못 시작했습니다.

• 첫째, 월요일이었다. (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.)

• 나는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.

• 내 마음은 내 의제에 있는 모든 것들과 경주하고 있었다.

•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바쁜 주말을 보낸 후 우리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.

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
• 심술궂게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

• 출근 하면서 자리에 커피를 쏟았습니다.

• 그리고 사무실로 가는 길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• 다행스럽게도 내가 도착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.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• 나는 일주일을 정리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데 열중했습니다.

• 내 마음과 감정이 좋지 않았고 마음 속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.

오늘은 렉시오를 빼먹는 날이 아니었습니다.

• 이렇게 몇 시간을 보낸 후 일정에 몇 분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고

이번에는 개척해야 합니다.

• 몇 분 안에 나는 정확히 내가 들어야 할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...

이 과정을 통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

• 그리고 몇 분이 더 지나자 말 그대로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.

•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...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

• 그게 전부입니다.

• 따라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관행에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.

•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저널과 가이드가 공용 공간에 있습니다.

당신의 방법에.

-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 말해야 할까요.

축복

- 그래서... 당신은... 듣는 법을 배우는 남녀가 될 수 있습니다.
-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.
-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.